



▲ 엔트리봇 체험 연수

‘SMArt 3Go’ 활동으로 ‘디지로그인’ 기르기에 주력

장성중앙초등학교 학교탐방

키우는 장성중앙 디지털



▲ 김성희 교장

장성중앙초등학교(교장 김성희)는 선비의 정신이 살아있는 문벌여 장성의 중심학교이다. 노령의 높은 기슭과 황룡강의 맑은 정기를 받아 학생들은 품성이 바르고 활기가 넘친다.

하지만 전교생 475명 중 시설 학생이 11명, 다문화가족 학생 34명 등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33%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해택이 미흡하고 가정학습 지도도 소홀해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이 낮은 편이다.

또한 학생들의 디지털교육 기회가 없어 정보와 역량 낮아 미래사회에 절실한 요구되는 SW교육 역량이 전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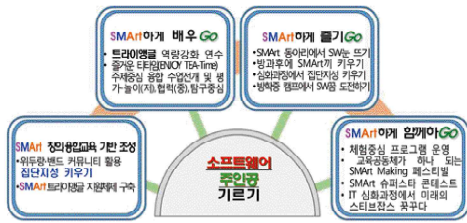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장성중앙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정보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창의적인 지적 재능을 갖추고 디지털교육과 아날로그 감성 역량을 갖춘 ‘디지로그인’을 브랜드화해 창의·융합교육을 충실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SMArt 3Go(메우Go, 즐기고Go, 함께하Go) 활동을 특색교육으로 학교 교육과정(교과, 창의, 잠재)과 융합해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창의·융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주인공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디지로그 교육 위한 여건 조성

이 학교는 디지로그교육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SW교육 선도학교, 로봇교육 실험학교를 공모·선정돼 학생·교사·학부모 연수를 위해 3개의 연수실을 갖췄다.

또한 3~6학년 13개 교실과 특별실 2개 총 15개의 교실을 전자칠판으로 바꾸고 학생들의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대별실 PC 55대 노트북 8 대를 구비해 모듈형 1대의 PC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며, SW교육을 위한 스크래치 센터 보드 25세트 등 다양한 교구와 각종 로봇을



구입해 미래의 SW 주인공을 기르기 위한 준비를 했다.

디지로그 교육을 위한 사수 확보 및 교육과정 재구성

장성중앙초등학교는 디지털교과서 SW교육, 로봇교육을 위해 1~6학년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SW교육 시수를 10시간 편성하고, 5~6학년은 실과 교과에서 12시간의 SW와 로봇 교육을 더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교과와 융합한 교육을 통해 모든 분야에 SW를 융합하는 창의·융합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하고 있다.

3D 프린터 활용 교육 기부

지역 유관기관의 교육기부를 통한 SW, 진로, 다문화, 아토피치음 등 다양한 SMArt 3Go교육활동 지원 협약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한 로봇코딩 캠프, 3D프린팅 교육 등을 실시했다.

홈페이지·밴드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및 교육활동 관련 5개의 밴드 그리고 위두랑 커뮤니티를 통해 디지털교육을 위한 각종 연수 자료, 수업안, 동영상 등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SMArt 3Go 특색프로그램 운영

SMArt(스마트+문화예술) 3Go 융합교육이란 SMArt 3Go(메우Go, 즐기고Go, 함께하Go) 활동을 학교교육과정(교과, 창의, 잠재)과 융합해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창의·융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주인공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학생들의 SMArt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연중 계획을 세워 디지털교과서 활용법, SW교육, 로봇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교과시간 및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SMArt한 수업 우수 선생님 되기

SMArt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활용방법, 스마트교육, 소프트웨어교육, 로봇교육 등 정보화 관련 교내연수, 강사초빙 컨설팅 및 공모지원연수 등 전교사 60시간 이상의 정보화관련 기초소양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현장에서 쉽게 적용가능하고 다양한 교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된 연수라 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고 모든 교사가 연수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연수에 참여한 이영희 교사는 “웹소스마트교육, 소프트웨어교육은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만 하는 특별한 교육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SMArt한 서포터즈 학부모 되기

학부모들의 SW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SMArt한 서포터즈가 되기 위해 SW가족체험전, SW진로 특강, SW 원에 테라피 및 교과융합 수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2개 동아리에서 즐기며 꿈을 키워요

학생들은 인플러그드 동아리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즐기, 미술융합(스케치업류) 동아리에서 인성 캐리터 및 만화 그리고 등 22개의 동아리활동을 통해 스마트와 문화예술을 동시에 즐기며 꿈을 키운다.

SMArt 방과후교육에서 SW꿈을 키워요

이 학교는 기초반, 자적중반(3~6년), 심화반(SW, UCC 제작반)으로 나누어 기초

부터 SW 제작에 이르기 까지 SW 관련 꿈을 키워고 있다.

과학 SW시뮬레이션 만들기, ‘과학수학+SW 융합 프로젝트’ 등 연간 132시간의 수업을 통해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고 있다.

융합 영재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4학년 진경인 학생은 “첫 수업을 받을 때는 단순히 흥미롭고 새로운 공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했지만 지금은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하지만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앞으로 지금보다 더 정교하고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SMArt하게 함께하Go

학생이 주체가 돼 핵심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SMArt 기반 체험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실시했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인플러그드 운동회, 온라인 코딩 파티가 있으며 방학 중에는 대학생과 함께한 속속 캠프, 꼬마 로봇캠프 등을 운영하였다.

지난 9월 30일 개최된 SMArt Making 페스티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장성중앙초 김성희 교장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갖추어진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SMArt 교육하면 20년 후엔 장성중앙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예술과 디지털이 융합된 미래의 스티브잡스가 나올 수 도 있다는 기대와 자부심으로 SMArt 3Go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 디지로그인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